

문화예술 기반 도시재생과 계급 문제에 대한 현시대적 함의 — 부산과 창춘의 사례 분석을 토대로

전국조*

Ⅰ 목 차 Ⅰ

- I. 들어가며: ‘gentrification’, ‘등지 내몰림’, ‘embourgeoisement’, ‘紳士化’
- II. ‘gentry’, 신자유주의, 젠트리피케이션의 변증법
 - 1. ‘gentry’: 역사사회적 배경
 - 2. 신자유주의와 젠트리피케이션
 - 2. 젠트리피케이션의 변증법: 스펙터클 도시, 인지자본주의, 예술인간
- III. 한국과 중국의 젠트리피케이션: 부산과 창춘의 사례
 - 1. 부산: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
 - 2. 창춘: 무단거리[牡丹胡同: Mudan Street]
 - 3. 함의: ‘메타스펙터클’과 ‘문화자본 형성의 비결정성’
- IV. 나오며: ‘문화자본의 벡터’와 ‘도시 공동체로서 창조적 장소 만들기’

I. 들어가며: ‘gentrification’, ‘등지 내몰림’, ‘embourgeoisement’, ‘紳士化’

먼저 기억의 단편(斷片)을 모아 보는 일로 시작해 볼까 한다. 이 일은 중요하다. 최근 몇 년 간 내가 이 작업과 관련해서 갖게 된 문제의식과 그것의 발전 과정을 드러내기에 그만큼 적합한 것도 없을 듯하기 때문이다. 기억의 중심에는 2015년 전후로 해서 막 시작했던 일이 있다. 2000년대 초반 영국에서 출간된 르페브르(Henri Lefebvre) 개론서의 번역이었다. 그 즈음 ‘gentrification’을 비판적으로 다룬 TV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한 편 봤다.1) ‘gentrification’이란 것이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얘기가 심지어 TV로도 쏟아져 나올 때였다. 그것의 심각성을 알아 가는 이가 굳이 문화—공간—도시—지역 같은 것을 한데 엮어 공부하고 있던 나 같은 문화연구자일 필요조차 없을 때였다.2) 그러다가 ‘gentrification’이 ‘등지 내몰림’으로 번역, 사용되기 시작했음을 알게 된다.3) 문득 의문이 든다. “gentry”는 어디 갔지? 국어순화(정책)도 좋지만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계급 자체를 삭제해 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번역으로 한창 바빠지면서 그 의문은 잠시 접힌다. 그러던 어느 날, 번역 일에 허덕이면서 르페브르 저서를 이것저것 뒤지고 있는데, 한 순간 “gentrification

* 경성대학교 한국한자연구소 HK연구교수, gukjojeon@daum.net

1) 「문화 증발, 사막이 된 도시」, 『추적 60분』, KBS, 방영일: 2015. 07. 08. 이선영(2015) 「왜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인가? 국내 젠트리피케이션 논의의 유행에 대한 진단과 전망」, 『예술가,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도시재생』, 서울문화재단, 37, 각주 1. 지면의 제약으로 이 작업에선 따로 <참고문헌>을 마련하지 않고 각주로, 그것도 최소한의 필수 정보만 제공한다.

2) ‘gentrification’ 관련 보도는 2014년의 45건에서 이듬해엔 203건으로 급증한다. 같은 글, 37.

3) 김형배(2016) 「뜨는 동네 주민 떠나게 하는 ‘등지 내몰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

(“embourgeoisement”))”이란 글귀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아닌가?4) 타당한 번역이라는 생각과 함께 갖게 된 내 나름의 확신, “동지 내몰림’을 봤을 때 들었던 의문이 아예 턱없는 건 아니었구나! 그러다가 이번 작업을 통해 한어 대역어 ‘紳士化(신사화)’까지 확인하게 된다. 애초의 의문은 풀리기커녕 점점 더 증폭하기만 한다. 그리고 지금이다. 그렇기에 이 작업은 이 의문을 문화예술 기반 도시재생의 맥락에서 풀고, 그 맥락의 현실을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 간의 문화정치적 동학(動學)을 한국과 중국의 사례를 하나씩 정리하면서 탐구하고 규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다.

II. ‘gentry’, 신자유주의, 젠트리피케이션의 변증법

1. ‘gentry’: 역사사회적 배경

영국에서 ‘gentry’는 특정 계급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윌리엄스(Raymond Williams)는 ‘목가와 반(反)목가’ 또는 ‘시골과 도시’의 맥락에서 17세기 전반의 시(詩) 몇 편을 해석하면서 ‘gentry’를 등장시킨다. 그가 “오만, 탐욕, 이해타산은 도시 상인이나 궁정인들뿐 아니라, 시골의 토지소유자들에게도 만연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할 때, ‘시골의 토지소유자’가 바로 ‘gentry’인 것이다.5) 그 계급을 ‘향신(鄉紳)’으로 옮기면서 『시골과 도시』의 번역자는 다음의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인다.

(역주) gentry: 넓은 의미로는 귀족을 포함한 명문가 사람들을 지칭하는 데 쓰이기도 하지만, 보통은 신분적으로 귀족과 자영농민(yeoman) 사이에 위치한 계층을 의미한다. 시골에 넓은 영지를 소유하면서 이를 임차 농장의 형태로 운영하는 까닭에 직접 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원래는 토착 지주가 중심이었으나, 점차 도시에서 부를 축적하여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도 포함하게 되었다. “향신”(鄉紳)이나 “향반”(鄉班)으로 옮기기도 하고 원어 그대로 “젠트리”로 표기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향신”으로 옮긴다.6)

하지만 이것만 갖고는 뭔가 부족해 보인다. ‘gentrification’을 ‘紳士化’로 볼 때, ‘士’가 아직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해답은 한 번 더 『시골과 도시』의 역주를 참고해야 나올 것 같다. ‘squire’의 번역어, ‘향사(鄉士)’의 설명이다.

(역주) squire: 향신(gentry) 가문의 남자 가장을 지칭. 향신 가문은 대대로 지역에서 가장 부유하고 명망성이 높은 토지소유자(landowner)를 지칭한다.7)

4) Smith N (2003) ‘Foreword’, *The Urban Revolution*, R Bononno (tr.),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 London, xx-xxi. 다음은 이 글귀가 포함된 대목이다. “르페브르는 도심의 gentrification (“embourgeoisement”)을 언급했지만 그 과정 또한 1960년대 이후로는 급격하게 변화해 왔다. ... 1980년대 이후로 gentrification은 전 지구적 도시 팽창 전략의 하나로 점점 더 일반화돼 왔다.”

5) 윌리엄스, 레이먼드(2013). 『시골과 도시』, 이현석 옮김, 파주: 나남, 66-70.

6) 같은 책, 66-67, 주 68.

7) 같은 책, 136, 주 7.

상기의 두 설명을 종합해 보면 당시의 ‘紳士’는 시골에선 넓은 영지를 소유한 계급, 그렇게 축적한 부를 통해 차츰 도시에서도 토지를 매입했던 계급, 또는 도시의 신흥 토지 소유 계급이다. 그랬기에 유한계급이었음 또한 자명하다. 현재 젠트리피케이션의 한 주체인 ‘임대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땅에 더해 건물까지 갖고 있다는 정도일까, 불로소득을 기반으로 한 유한계급이란 근본적인 특징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더군다나 현시대 ‘임차인’이 당시 정치사회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소규모 자작농’과 별 다를 바 없고⁸⁾ 현재 임차인이 쫓겨나는 모양새가 당시 추방당할 수밖에 없었던 소규모 자작농의 그것과도 별 다를 바 없다면, 다음과 같은 잠정적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현시대의 ‘gentrification’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지대를 바탕으로 자신의 계급이익(자본축적)을 점점 더 가속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런 까닭에 현시대 특유의 ‘도시적 인클로저가 팽배’하는 데도 크나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실지로 상당히 신자유주의적이기도 한 것이다.⁹⁾

2. 신자유주의와 젠트리피케이션

젠트리피케이션이 신자유주의적 도시 공간 재편의 핵심 전술이라는 점, 또 그 가운데서도 젠트리피케이션과 문화예술 기반 도시재생이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전 지구화로 대변되는 현시대에 도시성장파 전통적 의미의 산업발전은 더 이상 동력을 돌지 않는다. 산업기반은 도시에서 이탈했고, 도시는 텅 비어 버리다시피 한다. 이제 도시의 생존은 전적으로 새로운 돌파구의 모색·준비·실현에 의존하기에 이른다.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문화다. 예술을 포함한 문화 전반이 도시성장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도시재생’은 이 같은 도시의 변모 과정 및 그 효과의 별칭이나 다름없다.

그 결과로 지금껏 드러난 것은 도시의 공장화와 문화의 제품화, 한 발 더 나아가 도시의 시장화와 문화의 상품화다. 인류의 역사를 얘기할 때 결코 빠질 수 없는 것 둘, 바로 도시와 문화다. 인류 문명이 만개한 곳, 때로는 혁명의 전장이 되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았던 곳, 그래서 수많은 얘기를 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곳, 그 도시는 이렇게 몰락했다. 마찬가지로 인류의 물질문명은 물론 그것을 토대로 이룩해 온 정신문명까지 함께 일컬었

8) “(역주) peasantry: 대개 독립적인 소농과, 영주 소유의 땅을 관습에 따라 반영구적으로 보유하고 경작하는 소작농(관습보유농, *customary holder*) 등을 느슨하게 포괄하는 명칭인데, 저자는 이를 “사회적, 정치적 의무를 지고 있는 소규모 자작농”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책, 131, 주 1; 201.

9) Hodkinson S (2012) ‘The new urban enclosures’, *City*, 16 (5), 500-18; 김용창(2016) 「도시 인클로저와 거주 위기, 거주자원의 공유화」, 『위기의 도시, 희망의 도시 심포지엄 자료집』, 한국공간학회·서울연구원, 115-6. 이것과는 조금은 결이 다른 정의가 통용되는 것 같기도 하다. 그 말은 1964년 영국의 사회학자 루스 글라스(Ruth Glass)가 최초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연진(2016) 『문화·예술분야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iv, 11-12; 김연진(2018)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 『환경논총』, 61, 12; Hamnett C (2015) ‘Gentrification: its history, forms, causes and consequences’, *Artist, Gentrification and Urban Regeneration*, The 7th Seoul Art Space International Symposium,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8, 20. 참고로 한 가지 환기하자면,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 곧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의 경제적·정치적 부활”이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역시 “경쟁”이 된다. Meagher S M (2020) ‘How Might Creative Placemaking Lead to More Just Cities?’, *The Routledge Handbook of Philosophy of the City*, S M Meagher et al. (eds.), London & New York, Routledge, 173.

던 문화는 또 이렇게 전락했다. 이렇게 볼 때 현시대에 이르러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 재고(再考)되는 문화, 곧 도시의 정치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문화의 중요성은 미증유의 파문(波紋)을 일으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파문은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의 확산과 도시 관광의 문화적 형식 개발”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격랑(激浪)이 되어 우리 도시거주자를 덮쳐 오고 있으며, 이 현상의 주된 추동력은 바로 “문화의 상품화와 문화 자본주의의 확산”이다.¹⁰⁾

이런 상황에서 예술가의 역사사회적 입지 또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천재’ 예술가, 낭만주의적 예술가상에 입각한 예술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으며 그리할 수도 없다. 이른바 ‘예술을 위한 예술’이 설 자리를 잃었기 때문,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예술 또한 역사사회적 생산물이란 얘기가 나온 지도 꽤 오래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발견된, 예술가의 새로운 자리, 바로 “기발한 창조자와 창조적 촉진자 사이”다. 하지만 그 새로운 자리에서도 예술가는 “젠트리피케이션을 경험하게 되는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도시의 “재(심)미화(reaestheticisation)”에 문화가 적극 사용되고, 또 그 과정에서 자신의 터전인 삶과 일 양 측면 모두에서 “매력적인 장소”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술가 자신의 작업에서 “공동체와 장소”는 그 자체로 난제이긴 하지만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 까닭에 예술가란 사회적 존재는 젠트리피케이션에 한층 더 심각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¹¹⁾ 이 같은 상황은 다시 두 가지 문제로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다. 하나는 문화예술 실천가가 젠트리피케이션과 강제퇴거를 동반하는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물론 그것의 강화에 복무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신자유주의적 실용성 증대를 위한 상품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가능성 또한 발생한다는 것이다.¹²⁾

2. 젠트리피케이션의 변증법: 스펙터클 도시, 인지자본주의, 예술인간

논의의 진행을 위해 우선 ‘스펙터클’의 변증법적 동학을 통해 그것의 벡터를 간단히 그려볼 필요가 있다. 간단히 말해, 스펙터클은 ‘지배경제의 이미지’다. 그렇기에 그것에는 근본적으로 도착(倒錯)을 통한 이상증식의 운동성이 내재한다. 마치 건강한 이웃 세포를 닮은 대로 파괴하면서 자신의 영역을 무한히 확장해 가는 암세포처럼 말이다. 반면, 그것에는 포획·집적·집중을 통한 축적의 운동성 또한 내재한다. 부단한 확산이라는 한쪽의 변위와 부절(不絶)한 수렴이라는 다른 한쪽의 변위가 형성하는 벡터가 바로 스펙터클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현시대 도시는 그 자체로 스펙터클이며, 그렇기에 그것은 ‘스펙터클 도시’로 불리기에 별 손색이 없다. 그리고 이 스펙터클 도시를 무대로 인지자본주의는 한층 더 활개를 치면서 예술인간의 사회적 생산을 위한 조건을 형성하고, 이윽고 예술가-노동자 또는 노동자-예술가를 양산하기에 이른다.¹³⁾

10) Miles S & Paddison R (2005) ‘Introduction: The Rise and Rise of Culture-led Urban Regeneration’, *Urban Studies*, 42 (5/6), 834.

11) Sharp J et al. (2005) ‘Just Art for a Just City: Public Art and Social Inclusion in Urban Regeneration’, *Urban Studies*, 42 (5/6), 1014.

12) Meagher, *op cit.*, 173.

그런데 여기서 놓쳐선 안 될 점이 한 가지 있다. 스펙터클 도시가 중대한 모순적 전기를 맞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은 매체와 결합하면서(mediatiation) 투어리피케이션(tourification)이라는 한층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로써 스펙터클의 도시는 도시의 스펙터클과 함께 중층적 이상증식의 양상을 띠게 된다. 이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를 가능케 하는 조건이 바로 수많은 도시거주자의 다양한 문화적 실천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같은 조건은 도시의 스펙터클과 스펙터클의 도시, 이 둘 모두의 토대가 모종의 공유(共有·公有) 공간 또한 사회적으로 생산해 내고야마는 예술인간의 창조적 능력이라는 역설적 사실을 반증한다. 다시 말해서 스펙터클의 도시와 도시의 스펙터클로 대변되는 현시대 도시재생은 비록 “그것이 자본주의적 축적의 수단이 되는 경우에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사랑을 받는 이러한 공통성의 예술형식”, 곧 현시대 예술인간의 “특이성들을 기초로 한 집단적 결정과 협치”를 뒷받침하는 “예술인간적 다중의 힘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¹⁴⁾

이 같은 모순, 또 그 간극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모순적 상황에서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예술가를 포함한 문화실천가의 관계는 어떻게 재규명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사람들의 사회적 위치는 또 어디로 잡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자이자 젠트리피케이션을 촉발하는 젠트리파이어”(both the gentrified and gentrifying)이기만 한 것일까?’¹⁵⁾ 이렇듯 그 사람들은 양가적 존재이기만 한 것일까? 아니면 한 발 더 나아가 젠트리피케이션에 기여함은 물론 심지어 그것의 가속화마저 촉진하는 이인 것일까? 그도 아니면 그러는 와중에도 그 속도에 맞선 자기 고유의 리듬으로 그것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는 가운데 그것에 저항하고 중국에는 그것을 극복하는 이, 곧 기존의 스펙터클을 초과하는 ‘메타스펙터클’을 상상하고 실현하는 이인 것일까?’¹⁶⁾ 이 질문에 대한 답의 가능성은 지금부터 제시하는 한국 부산(釜山)과 중국 창춘(長春)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¹⁷⁾

III. 한국과 중국의 젠트리피케이션: 부산과 창춘의 사례

1. 부산: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

현시대의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스펙터클의 도시와 도시의 스펙터클이란 맥락에서

13) 조정환(2016) 「예술인간의 탄생과 반자본주의적 공동도시의 전망」, 『위기의 도시, 희망의 도시 심포지엄 자료집』, 59.

14) 같은 글, 5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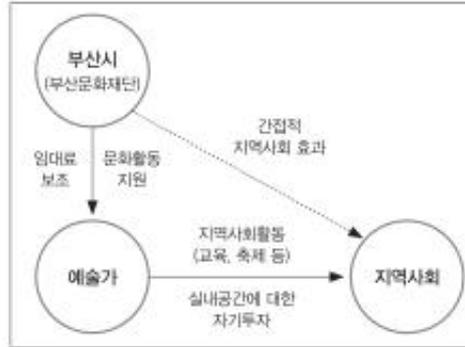
15) 김연진(2018) 앞의 글, 12.

16) 이 작업의 말미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메타스펙터클’은 얼마 전 대학원 은사 및 여러 동학과 나눈 얘기에서 나온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그 자리를 함께한 모든 선생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린다.

17) 그 전에 해 뒀으면 하는 얘기가 두 가지 정도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이끄는 주체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부산의 경우는 ‘정부 주도 + 예술 주도의 상의하달 유형’으로, 창춘의 경우는 넓은 의미에서 ‘청년층 주도의 하의상달 유형’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김연진(2016) 앞의 글, v, 17-19.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례 구성을 이렇게 한 까닭이 한중 간 정치체제의 차이에 따른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급적 배제하기 위해서라는 점이다.

예술가를 포함한 문화실천가의 계급적 함의를 밝히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사업인 ‘또따또가’의 경우, 그 사람들은 이미 이른바 ‘문화지구 정책 거버넌스(policy governance of cultural districts; 文化地區 政策治理)’의 일원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¹⁸⁾

<그림 1> ‘또따또가’ 정책의 구조(57)



<표 1> ‘또따또가’의 10년(2010~2019)과 거버넌스

‘또따또가’의 10년(2010~2019)		
위치 및 현황 (2020년 현재) ¹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 중앙동과 동광동 일대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원도심 문화 공동체 프로젝트: 문화 예술 전 분야의 다양한 예술가들이 거주하며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형성 공간시설: 26개 건물, 80실 입주 인원: 개인작가 43명, 단체 24개, 총 223명 활동 중 	
사업명칭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용과 존중, 이해와 소통의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의미: ‘тол레랑스(Tolerance)’, ‘따로 또 같이’, ‘가(街)’를 합성(55-56) 	
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9년 부산시가 문화예술 관련 예산 일부가 남아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하던 중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가 원도심 내 빈 공간을 활용한 창작공간 임대사업을 제안하면서 시작(56)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광역시 중구의 구도심 지역인 중앙동 2, 3가 일대를 대상으로 건물 2~4층의 빈사무실을 임대, 예술 작가들에게 창작공간 제공(56) 	
사업기간 및 사업비	제1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2010~2012), 연 3억 원 → 2011년 연 4억 원으로 증액
	제2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2013~2015),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56)
	제3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2016~2018),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
	제4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2019~현재), 예산 절반 수준으로 삭감: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또따또가 예산 3억2,000만원(공모 기준)을 1억6,000만원으로 삭감, 삭감안은 본회의에서 통과

18) 지면 관계상 부산과 창춘의 두 경우 모두 그림과 표로 정리토록 한다.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두 논문을 발췌·수정·정리한 것이다 — 박세훈·주유민(2014)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지구정책 거버넌스 연구: 부산광역시 또따또가를 사례로」, 『국토연구』 83, 49-67; Zhang J et al. (2020) ‘Young Pioneers, Vitality, and Commercial Gentrification in Mudan Street, Changchun, China’, *Sustainability*, 12 (8), 3113, 1-15.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것은 따로 인용부호를 붙이지 않고 쪽수만 적도록 하고, 다른 자료를 참조한 경우엔 그 출처를 따로 밝히도록 한다.

문화지구 정책 거버넌스의 모델 및 '또따또가'의 특징		
	모델의 보편성(55)	'또따또가'의 특수성(64)
정부-예술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가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 • 과도한 정부간섭과 통제 배제 • 예술가/문화활동가에게 주도권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 운영, 축제 기획, 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 예술가의 자율성 보장: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 지원은 보장하되 간섭은 배제) • 중간지원조직의 자율성 최대한 보장, 이들을 통한 예술가 지원 • 예술가들에 대한 요구 조건 최소화: 지역사회활동만 요구 • 제2기 활동: 예술가들이 중간지원조직 직접 운영
정부-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물리적 개발 억제 • 단기간의 지가상승 최소화 노력 • 적정 수준의 소비기능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운영 방향: 부동산 시장의 영향 최소화 • 개발 사업 최소화 및 프로그램(축제, 교육, 공동체 활동 등) 중심 운영 • 2~4층의 사무공간 임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관광객을 위한 볼거리 만들기보다는 예술가들의 정착 여건 조성에 집중
정부-지역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문화·역사와 조화 고려 • 지역의 건축자산 활용 • 지역 출신 예술가 우선 지원 • 지역사회 주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가 공모 시 개인적 역량과 함께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 강조 • 고급예술보다는 지역사회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및 축제 프로그램 운영 • 초기부터 건물주 및 상인들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와 파트너십 구축 • 인쇄골목 프로젝트 같은 지역사회 밀착형 문화예술사업의 기획 및 운영

<표 2> '또따또가' 거버넌스의 의의, 효과, 제언

의의 및 효과	
정부-예술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설적 성공요인: 시 정부의 무관심(59) • 중간지원조직의 중요성 대두: 정부-예술가 간의 갈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정부: 지원받은 예술가의 지역 기여에 대한 의심 - 예술가: 지역사회 활동보다 독자적 창작활동에 집중 - 중간지원조직: 적대적 관계 발생 가능성의 사전 차단(60)
정부-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시장경제 간의 모순적 관계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의 토대에서 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당국자의 입장: 시장의 힘은 적절히 활용하면서도 지나친 상업화는 경계 - 장기적으로 일정 정도의 상업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단기적으로 지역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업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 • 효과

19)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 부산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 효과: 지역 활기의 회복으로 예술가의 자체적 투자 증가 → 독립적 예술가의 증가는 부산의 원도심 지역이 예술가한테는 점차 매력적인 공간이 되고 있음을 함의 - 부정적 효과: 여전히 젠트리피케이션의 위협에 노출(60~61)
정부-지역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의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의 예술가 지원사업과 차별화: 예술가 개개인이 아니라 예술가‘들’의 공동체 형성 노력 및 지역사회 기여에 집중 • 입주 예술가 선별 기준의 차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가 자신에 대한 원도심의 의미 -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기여 방안 - 재능기부 및 공유 방안 - 결과: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장기적으로는 정착을 원하는 예술가들로 구성, 예술가들은 자연스럽게 지역사회를 위한 일꾼으로 변모 • 거점 공간의 형성 및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가와 지역주민의 분리 방지 - 양자의 일상적 만남과 소통을 가능케 하는 기회 제공 • 다자간 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주와 지역상인은 물론 지역에서 활동하는 직장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업 기획, 이들과 융합될 수 있는 방식으로 시행 • 젠트리피케이션의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 상존(62~63)
제언 및 진행상황	
제언 ²⁰⁾	이후 진행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재적 젠트리피케이션 심화 및 확장에 대한 선제적 대응: 민관협의체 구성, 토론회 및 컨퍼런스 개최, 상생 협약 체결 →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화일로를 거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따또가 예산삭감 문제의 근본적 원인: 소통 및 거버넌스 과정의 부재 - 그간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쌓아 놓았던 거버넌스 신뢰 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 시급 - 거버넌스 소실, 대화 부재²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임차공간인 까닭에 안정적 활동을 통해 지역 정체성 보존을 도모할 수 있는 핵심시설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성1918 부산생활문화센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18년 한성은행 부산지점으로 설립 - 1960년대 개인에게 매각된 이후 상업용도로 이용되다가 2000년대 들어 철거위기에 있던 것을 부산시가 매입 -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 2018년 4월 ‘한성1918 부산생활문화센터’로 새롭게 탄생²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 활동의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예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 「부산광역시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 2020. 07. 13 ~ 07. 14, 「부산시민 문화현장」 제정을 위한 대시민 의견 수렴 • 2020. 08. 03, 「부산시민 문화현장」 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 개최

20) 손은하(2017) 「문화적 도시재생의 함정」, 『동북아 문화연구』, 50, 50.

21) 차재근 외(2020) 「[대담] 2019년 부산 문화정책 이슈 돌아보기」,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22) 「한성1918」, 한성1918 부산생활문화센터.

2. 창춘: 무단거리(Mudan Street: 牧丹胡同)

<표 3> 중국 도시재생 개관과 ‘창춘 무단거리’의 10 여년(2008~2020)

중국 도시재생 개관	
중국의 도시재생 (urban renewal; 城市更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년대부터 대도시에서 시작 • 진행과정 및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관리자나 기획자 같은 엘리트의 의지를 반영한 새로운 젠트리피케이션, 부유층의 취향에 맞는 도시경관 조성 - 전통 상업가(商業街)의 대거 철거 및 대대적 정비 •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 이용자의 진정한 욕구 및 감정은 대부분 무시당함 - 상업공간과 사람의 단절 - 소비문화와 분위기 훼손 - 거의 텅 비게 된 신축 건물과 침체된 사업(2~3)
‘창춘 무단거리’의 10 여년(2008~2020)	
창춘과 무단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380만 명, 중국 동북부의 대도시 - 한때 만주국의 수도(1930년대~40년대): 서구 소비 개념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 소비 도시 -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제조업 중심지로 탈바꿈 - 개혁개방 이후: 서비스산업의 급성장 및 상업 공간 발달 • 무단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주요 쇼핑센터 중 하나인 구이린거리 상업지구(桂林路商業區)와 인접한 도심 지역 - 확장적 의미: 상업 활동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사업은 무단거리에 한정되지 않고 무단거리를 핵심으로 해서 여러 주변 거리로 확장 → 무단거리는 이렇게 형성된 블록 전체를 지칭(4)
무단거리의 젠트리피케이션 과정과 주체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부터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의 급격한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 수 급증: 약 2.5배 - 2008년 이전: 80개 미만 — 식료품점, 수리점, 소규모 생필품 취급점 따위 - 2019년: 206개 — 문화 및 여가 관련 소비 매장이 대다수(112곳, 3분의 2가량) - 특징: 공간의 다양성(카페, 바, 레스토랑, 꽃집, 사진관, 수공예품 스튜디오, 음악 스튜디오 따위)으로 말미암아 현시대 중국 청년문화를 대표하는 새로운 소비지이자 패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 주체: 젊고 전위적인 개척자(young avant-garde pione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적인 소규모 카페, 술집 따위를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 - 목적: 도시 청년층에 속한 정신적 고향 조성, 무단거리의 상징적 재건축 실현 - 효과: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는 것에 더해 중산층의 문화적 정체성 획득 → 상업적 활력 자극을 통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활성화(3~4, 13)
현재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의 위협(지속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료 상승과 치열한 경쟁에 이은 청년문화 분위기 약화 → 젊은 사업가의 강제퇴거 초래 • 정부의 압박(2017년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정부의 새로운 거리 정비 사업 개시와 제도적 규제 강화에 따른 대부분의 상점가 개조 → 젊은 개척자의 강제퇴거 가속화(4~5, 11)

의의 및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의: 결과를 놓고 볼 때 비록 성공적 평가를 내리긴 힘들다 해도 하의상달 도시 재생의 훌륭한 사례 • 제언: 도시 경제·사회·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상의하달, 중앙집권적 접근의 지양 필요, 특별히 시 정부의 입장에선 하의상달 도시 재생의 보호·촉진을 위한 정책 입안 및 시행 필요(13)
---------	--

<표 4> 카페 운영자 인터뷰: 유의미한 내용 발췌(7)

시기 및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3회: 2012년 12월, 2016년 7월, 2017년 6월 • 카페 운영자: 16명 		
질문	응답 내용	응답 인원	백분율(%)
교육수준	고등학교	1	6.3
	학사학위	13	81.3
	대학원 학위	2	12.5
전공	예술	6	37.5
	문학	3	18.8
	기타	7	43.8
주업(主業) 및 이전 직업	대학 졸업자	7	43.8
	사무직 종사자	9	56.3
	예술가	3	18.8
	편집자·작가	2	12.5
	사무원	2	12.5
	변호사	1	6.3
	심리학자	1	6.3
	식당 경영인	1	6.3
카페 운영 동기*	수익 창출	16	100
	자신을 위한 이상적 장소 건설	14	87.5
	좋아하는 것을 친구와 공유	13	81.3
	사무직의 한계: 적은 수입과 적은 자유	9	56.3
곤란한 점과 위험 요소*	지대 상승	16	100
	현재의 낮은 자본	11	68.8
	점점 더 격렬해지는 경쟁	10	62.5
	불안정한 고객 수요	8	50.0
* 복수(複數)의 대답이 이뤄진 질문			

3. 함의: ‘메타스펙터클’과 ‘문화자본 형성의 비결정성’

결론으로 향하기 전에 이상의 논의에서 추출할 수 있는 몇 가지 함의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메타스펙터클’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의 가속화, 곧 스펙터클의 도시와 도시의 스펙터클이 중층적 이상증식 일변도의 궤도에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그것에 대한 마찰력 및 제동력의 사회적 생산을 전략으로 삼을 때 꼭 필요한 변증법적 전술이다. 메

타스펙터클의 핵심은 ‘초과(excess)’에 있다. 하지만 그 초과가 말 그대로 기존의 스펙터클보다 더 굉장한 뭔가의 창조를 상징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 반대도 가능하다. 예컨대 ‘또따또가’는 대규모 시설투자를 통한 공간의 물리적 변형을 전혀 피하지 않음으로써 그곳을 들르는 이의 시선을 끄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간다. 이는 그 정책의 초점이 물리적 도시환경의 개선보다는 “공동체의 활성화와 문화예술 향유 기회의 확대와 같은 사회적 측면”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²³⁾ 이러한 방식을 ‘메타스펙터클’로 볼 수 있는 까닭은 그것이 현재 도시공간을 좌지우지하는 기술관료의 상상에선 이미 ‘외재화’된(externalised) 것이기 때문이다.²⁴⁾ 그 이전에는 내재적이었을 무엇, 하지만 이미 외재화돼 버린 그 무엇을 ‘재내재화(reinternalisation)’함으로써 기존의 스펙터클 생산 방식을 초과해 버리는 것, 곧 외부를 향해 뻗어나가기 일쑤인 스펙터클의 변위를 내부로 변환함으로써 그때까진 잠재태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무엇을 현실태로 변태(變態; métamorphose)시키는 것, 끝으로 그 과정을 꼼꼼히 밟아 나가면서 탈(脫)젠트리피케이션(degentrification)의 전략에 필요한 구체적 전술을 하나둘 수립해 나가는 것, ‘또따또가’는 어쩌면 그 과정을 충실히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면모는 창춘 무단거리의 상황과는 꽤 달라 보인다. 무단거리의 경우, 스펙터클의 도시와 도시의 스펙터클이라는 중층적 이상증식은 물론 전통적인 계급적 의미의 젠트리피케이션 또한 일정 부분은 답습한 듯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곳의 의의가 전혀 없는 건 또 아니다. 바로 이 작업에서 집중하고 있는 예술가를 포함한 문화실천가의 계급적 함의와 관련해 깊은 통찰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우선 다음의 정의를 한 번 봐 보자. 이 작업에서 논의하고 있는 ‘예술가를 포함한 문화실천가’를 다른 방식으로 정의해 놓은 것이다. “문화 주도 젠트리피케이션의 주체로서 예술가를 포함, 문화활동이나 행사를 창안하고 조직하는 문화기획자 등을 통칭하여 문화기업가(cultural entrepreneurs)라 하기도 한다”.²⁵⁾ 타당한 소리인 것 같지만 왠지 조금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무단거리의 청년 창업가한테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계급적 특징이 바로 “높은 문화자본 수준과 낮은 경제자본 수준”이기 때문이다.²⁶⁾ 그리고 이 특징은 ‘또따또가’의 예술가 집단한테서도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이 같은 공통점의 함의는 문화자본이 꼭 경제자본과 비례하지만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부의 대물림’을 예로 들어볼 때, 이전 세대의 자본 축적량으로 문화자본을 축적함과 동시에 그것의 수준까지 높여 가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것과 상반하는 경우 또한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이전 세대까지 축적해 놓은 부의 정도가 다음 세대의 계급의식 및 계급성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순 있겠으나 그것이 결정적이라고 말하기엔 다소간의 무리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실지로 이 같은 계급의 ‘비결정성(indeterminacy)’은 현시대 문화실천가의 계급적 층

23) 박세훈·주유민(2014), 앞의 글, 61.

24) 이는 르페브르가 비판하는 ‘어바니즘(urbanisme)’과 그 이데올로기에 복무하는 일단(一團)의 ‘기술관료’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 내용은 여기서 주로 논의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과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Elden S (2004) *Understanding Henri Lefebvre: Theory and the Possible*, London & New York: Continuum; 143-6을 볼 것.

25) 김연진(2018), 앞의 글, 12.

26) Zhang et al., *op cit.*, 2-3, 12-13.

위 또한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 낸다. 따라서 현시대 문화실천가의 계급적 함의와 그것의 동학은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태적(靜態的) 질문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변화의 추동력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으며, 그 변화의 역사사회적 당위는 또 어떻게 확보 가능한가?’와 같은 일련의 동태적(動態的) 질문으로 전환할 때 비로소 탐구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는 바로 ‘문화자본의 벡터’와 ‘도시 공동체로서 창조적 장소 만들기’에 있다.

IV. 나가며: ‘문화자본의 벡터’와 ‘도시 공동체로서 창조적 장소 만들기’

먼저 현시대의 문화실천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그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노동자’ 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가(자본가)’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기업가나 자본가로 불릴 수 있는 까닭은 경제자본보다는 문화자본을 축적해 왔기 때문이다. 예컨대 ‘예술가’로 불리는 사람의 경우, 사회적 지위의 역사적 부침(浮沈)에도 여전히 보존되고 있는 것은 바로 문화자본과 그것의 수준이다. 하지만 현시대에 이르러 단지 그것을 쌓아두고 있기만 해선 문화실천가로 불릴 수 없다. 어떤 식으로든 그것의 변위와 벡터를, 그것도 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형성해 나가야 한다. 그 첫 발은 바로 ‘도시 공동체의 형성’으로 뻗 수 있다. 그리고 그 조건은 앞서 밝힌 것처럼 현시대 도시에 이미 내재하고 있다. 비록 그것이 스펙터클의 도시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의 말처럼 ‘자본축적의 목적은 오직 더 많은 자본축적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예술인간적 다중의 힘을 필요’로 할 수 밖에 없다. ‘또따또가’의 경우, 그 힘은 2019년 12월 13일 부산시의회에서 예년 대비 절반 정도의 예산을 삭감하기로 결정한 다음 날인 14일부터 ‘예술 창작공간 운영 정상화와 문화예술 진흥사업 자율성 보장을 위한 예술인 연대 투쟁’을 벌이기 시작해 1,300명 이상이 온라인 서명에 동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단거리의 경우, 그 힘은 ‘좋아하는 것을 친구와 공유’하려는, 또는 그리하겠다는, 도시 공동체를 향한 열망과 의지, 또 그것들이 형성한 사회적 벡터로 드러났다. 그것도 전체 응답자의 80%가 넘는 수치로 말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그렇기에 늘 염두에 뒀어야만 하는 사실도 하나 있다. 현시대 문화실천가 또한 다른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관계적 존재’라는 사실이다. 부산과 창춘 경우 모두 마찬가지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현실 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창춘의 경우 중국 학계에서 정부의 전향적 노력을 권고하고 있는 것 또한 이런 맥락에서 생겨난 것일 터이다.²⁷⁾ 그렇다고 마냥 정책의 긍정적 변화를 기다리고만 있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해답은 끝없는 대화에 있다. 이를테면 문화예술 기반의 도시재생이란 큰 역사사회적 맥락에서 문화예술의 상상력 및 실천력과 철학의 비판력을 절합(切合; articulation)하는 대화처럼 말이다. 그 대화를 통해 서로는 한층 더 풍요로워질 수 있고, 그 풍요로움을 통

27) *ibid.*, 13.

해 ‘도시 공동체로서 창조적 장소 만들기’라는 현시대의 사회적 의제는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를 극복하는 추동력으로 변모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갈 때 현시대 문화실천가는 비로소 도시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더욱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연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모두는 시민 자신의 힘으로 더 정의로운 도시를 가꿔나갈 수 있는 토대로 작동하게 된다.²⁸⁾ ‘또따또가’와 ‘무단거리’의 두 사례를 포함해 지금까지 이 작업에서 해 왔던 논의 모두는 바로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요컨대 현시대의 젠트리피케이션과 문화실천가의 계급적 함의는 바로 ‘문화자본의 벡터’와 ‘도시 공동체로서 창조적 장소 만들기’의 상관관계 어딘가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변화하고 있다. 혹시 누군가가 모종의 바람직한 관계를 지금 이 순간 상상하고 있다면, 그것을 가능케 하는 조건은 이미 우리 삶에 갖춰져 있을 공산이 크다. 그 조건의 발견에 어려움이 뒤따른다면, 그 문제는 그것이 다만 망각의 늪에 빠져 있을 뿐이라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 아닐까.

끝으로 그 늪에서 건져내야 할 얘기, 또는 혹시라도 아직 그 늪으로 빠뜨리진 않았다면 결코 그리되도록 놔둬선 안 될 얘기가 하나 더 있다.

도시는 우리에게 공동체가 거의 총체적으로 해체됐음을, 여전히 ‘일반적 관심’을 대변한다고 감히 주장하는 부르주아 활동과 생활방식의 결과로 사회가 ‘사적’ 개인으로 원자화됐음을 말해 준다.²⁹⁾

28) Meagher, *op cit.*, 169.

29) Lefebvre H (1958, 1991) *Critique de la vie quotidienne I: Introduction* (2nd ed.), Paris: L’Arche, 248; *Critique of Everyday Life Volume I: Introduction*, J Moore (tr.), London: Verso, 233.